

‘이 시대의 지성’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듣는다



“사람·도시·자연 함께 성장해야 문화도시”



대담 = 박진현 논설위원

-이번 국제포럼에서 문화도시의 전제조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상적인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간과 도시, 자연이 함께 ‘성장’해가는 유기체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요즘 광주나 서울 등 여러 도시에서 말하는 문화도시에는 인간과 자연은 뒷전이고 도시가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오래된 것’들은 초라하다는 이유로 부수고 대신 고층빌딩이나 랜드마크들을 내세워 ‘문화도시’로 치장합니다. 빈민가 한 복판에 모던한 분위기의 예술 전당이 들어선다고 하루아침에 문화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마을(빈민가)과의 조화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새 건물이나 대형 이벤트가 도시를 단숨에 문화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술’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비엔날레 제작자들이 광주는 ‘비엔날레 벨트’를 벗어났다면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광주’가 새겨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현재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내 옛 전남도청 별관을 둘러싸고 철거를 요구하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보존을 주장하는 일부 5월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도청별관을 보존해야겠네요.

▲지금은 ‘철거냐’ ‘보존이냐’의 단계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철차상의 문제’

이 시대의 대표적 지성인 김우창(72)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사)국제문화도시 교류협회(이사장 정동채)가 주최한 ‘2009 문화도시정책연국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 김 교수는 국내 학계에서 ‘패밀리’를 거느리지 않았음에도 폭넓은 사유와 균형감각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존경받는 ‘큰 어른’이다. 특히 문학의 경계를 넘어 철학, 건축, 물리학, 정치경제학을 아우르는 그의 식견과 삶에 대한 성찰은 좌표를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날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만난 김 교수는 문화도시에서부터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이데올로기 대립, 촛불집회 등에 대한 견해를 때론 나직하게, 때론 격정적으로 쏟아냈다.

이데올로기 대립 좁히는 건 상대방 존중하는 마음

추진단-5월단체 ‘도청 별관 철거 합의’ 지켜져야

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전당 착공식이 있기 전에 이미 추진단과 5월단체가 합의해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도청별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차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가족회의에서 무등산에 가기로 결정해 김박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면 나머지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 시끄럽게 되겠지요. 추진단과 5월단체가 합의해서 결정할 내용은 존중돼야 합니다.

-지난 2일은 촛불집회가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진보와 보수, 좌·우 등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신문에 연재한 칼럼에서 거리집회는 새로운 시민운동이라기 보다는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썼는데 곧바로 인터넷에 ‘김우창을 추모하며’라는 댓글이 올라오더군요. (웃음)

거리집회는 4·19 혁명 때처럼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반정부성격이 강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합리적 토의과정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곤란합니다. 이슈를 제기하되 사회가 인정하는 ‘틀’(국회) 안에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나와 견해가 다르면 그 차이를 들어볼 생각이 없고 귀를 닫아 버립니다. 이 같은 경직된 사고로는 보수와 진보의 소통은 요원할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국내에서는 드물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존경받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앞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야기 했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언제든지 ‘현실’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상대의 입장이나 ‘다른 길’을 보게 되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좁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존중이 있으면 권리(투쟁)는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결양의 정신을 갖추면 이데올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전화를 걸어 나를 중도좌파로 쓴다면 적절하다고 보더군요. 박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사진 =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합격생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상위권대학 편입전문강좌... KY Membership 회원모집

새로운 출발! 성공의 첫단추! - www.kimyoung.co.kr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광주분원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

편입영어 전문강좌... 영어 초보자를 위한 기초이론반... 김영 TEST... 1차개강>5월1일, 2차개강>5월4일

상조 goodneighbor 푸른이웃(푸) 18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상조종합 서비스 전문회사 (주)조은이웃 상조... 18년 전통의 대표 상조회사 (주)조은이웃 광주지점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주부반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경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국 최강의 교수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